

서울대왕초등학교 신축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1. 청원개요

- 청 원 자 : 김이식(강남구 세곡동 475-11)외 787인
- 소개의원 : 김 현 기 의원(교육문화위원회)
- 접수일자 : 2007. 8. 17.
- 회부일자 : 2007. 8. 21.
- 청원요지:
 - 서울대왕초등학교(강남구 세곡동 122번지에 소재)는 학구내에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에 따라 2,4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는 2010년에는 학생수가 현재 516명에서 1,100여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사(校舍) 증축이 불가피 하고, 양재~세곡구간의 도로가 10차선으로 확장되면서 학교부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학교 개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SH공사 측으로 부터 13,854㎡의 학교 부지(기존부지:10,787㎡ + 3,067㎡)를 제공받아 학교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임.
 - 학구내 주택 개발 현황

사 업 명	위 치	세대수	입주예정 시 기	증가예상 학생 수	비고
세곡국민임대 주택단지	세곡동 122-2일대	2,463	2010.12	616	

- 참고자료
 - 세곡지구 개발관련 도면 1부(첨부)
 - 대왕초등학교 학교부지 설정 진행경과

2. 쟁점사항

- 서울대왕초등학교(강남구 세곡동 122번지에 소재)의 학구내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 추진에 따른 학생 증가를 대비하여 SH공사측에 학교 추가부지 설정을 요구하여 13,854㎡의 학교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나 이중 추가로 설정된 3,067㎡의 부지에 대하여 SH공사측은 조성원가의 50~70%에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부족과 학생 증가의 원인이 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따른 것이므로 무상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무상지급이 안될 경우 기존의 부지에 일부 증·개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며, 청원인들은 현재의 학교 건물은 1956년 단층으로 건립된 후 1973년 3층으로 증축되어 50년 이상 노후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단지 조성과 함께 교사를 신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

3. 소개의원 요지

- 서울대왕초등학교의 기존 부지에 교사(校舍)를 신설할 경우 증가되는 약 6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교사확보가 어려우므로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건물은 1956년 1층이 건립된 후 증축되어 50년 이상 노후 된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하거나 개축하기 어려우므로 아파트단지 조성과 함께 교사를 신축하여야만 새로운 교사가 완공될 때까지 현재의 교실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학교복합화 시설이나 담장 없는 공원화 시설 등으로 아파트 단지와 친화적인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을 설치·개방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학생들의 교육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하고, 학교와 지역이 조화롭게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 신축이 아파트 단지 조성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파트단지 완공 이후에 교사신축이 추진될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은 물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본 청원이 수용되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램.

4. 강남교육청 의견

- 세곡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대왕초등학교 운동장 북쪽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축소되므로 옥외교육활동의 어려움과 아파트 2,400여 세대 입주에 따른 600여명의 학생 증가로 인하여 교실 부족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S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우리교육청에서는 향후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남·서쪽 방향으로 정형화된 부지를 SH공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기를 희망함.
 - 만일 증·개축을 위한 부지 확보가 안될 경우, 추가로 부담되는 토지매입예산확보가 곤란하므로 현 대왕초등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 범위 내에서 환지 등의 방법으로 정형화 하여 교실을 증축할 계획임.

5. SH공사의 의견

- 청원 내용은 강남구 세곡동 일원의 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내 개발계획 수립시, 서울 강남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동 단지내에 위치한 서울 대왕초등학교(10,787㎡)에 추가로 확보, 반영한 부지(약3,600㎡)를 학교 신축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 요청하고 있음.
- 서울 대왕초등학교 추가 공급부지의 공급과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는 2006년 3월 7일 택지 공급 승인을 받아 건설교통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으로 공급 예정임.

5. 검토의견

- 「서울대왕초등학교」 교사(校舍)신축에 관한 청원은 김이식씨를 비롯한 강남구 세곡동의 주민 788인이 제기한 것임.
 - 강남구 세곡동 122-2 번지에 위치한 「서울대왕초등학교」 주변지역에 약 2,400세대의 국민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입주가 이루어지는 2010년이면 약600여명의 학생이 증가하여 학생수가 1,100여명이 되므로 현재의 18학급(학급당 29.4명)에서 38학급(학급당 29.3명)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기존한 교사(校舍)를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11학급 이상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학교 추가부지 설정에 있어서 SH공사 측은 조성원가의 50~70%에 제공 한다는 입장이며,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증가의 원인을 제공한 SH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문제 해결의 주요 쟁점 사항임.
- 서울시 교육청은 SH공사로부터 학교 추가 부지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경우 약 118억원의 예산으로 38학급을 전면개축을 한다는 방침이며, 무상지급이 안될 경우 기존 부지(10,787㎡)를 반듯한 모양으로 환지하여 11개의 교실을 증축한다는 방침이나 지역주민들은 아파트단지 조성과 함께 교사를 신축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음.
- 만약 현 학교부지에 교실을 추가로 증축할 경우 체육활동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학교와 아파트단지의 부조화는 물론 몇년 후에는 낡은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교육청은 SH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학교 추가부지(약3,000㎡) 매입을 위한 연차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대왕초등학교의 신축이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한 학교부지 10,787㎡를 정방형으로 제공받아 신축할 경우 38학급 정도를 건립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는 생각되나

이는 현재의 교사를 철거한 후 신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학교 추가부지로 설정된 약3,000㎡를 한시적으로 활용하여 교사를 신축하면 기존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교사가 완공되면 현재의 교사를 철거하여 이를 주민과 학생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학교 신축의 시기를 아파트 단지의 조성과 함께 추진하여 학교담장 없는 공원화 시설, 학교복합화 시설 등을 확보하면 문화·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주택과 학교가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학교를 일부만 증축할 경우 학교와 주변 단지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노후된 현재의 건물을 몇 년 내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철거와 잦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으로 지역민원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 되면서 교사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부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SH공사와 교육청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으로 기존 학생보다 외부유입 학생이 더 많은 「서울대왕초등학교」의 증축은 신설학교의 부지마련 기준(자치단체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각각 5대 5로 부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서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자치단체를 통한 예산확보 및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